

# ‘곡성 심청상품권’ 경제 활성화 도움된다

### 가맹점 250명·군민 250명 대상 설문 분석 결과 80% 이상 ‘긍정 평가’

지역상품권이 연일 정치권 이슈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곡성군에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23일 곡성군은 심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가맹점주와 군민 모두에게서 80%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에는 심리적 만족도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지역상품권의 실제 경제적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곡성 심청상품권 경제효과 분석 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설문조사 전문가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는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

식으로 진행됐으며, 심청상품권 가맹점 250명과 군민 25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상품권 상품권으로 인해 매출이 올랐다고 대답한 가맹점이 58.8%에 달했다. 매출 증가액은 1~5%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6~10% 증가했다는 곳이 15.2%로 뒤를 이었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한 곳도 7.2%나 됐다.

재미있는 것은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81.6%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 58.8%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가맹점주들이 자신의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심청상품권 이용 군민들의 월 평균

사용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인 24.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인 21.2%로 높았고, 40만원 이상 사용하는 비율도 14.4%나 차지했다.

사용처는 마트, 슈퍼, 편의점이 83.2%로 압도적이었다. 뒤이어 음식점 20%, 병의원/약국 18.8% 순으로 응답했다. 심청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였던 심청상품권 구입 할인액을 올해부터 5%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79.2%의 이용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용자 중 86.5%는 10% 할인을 원했다.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용자는 86%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상품권의 효과에 대해 가맹점주(81.65%)보다 군민들이 더욱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심청상품권이 일반마트보다 대형마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군민들의 경우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 일반마트에서 소액 결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도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이 심청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이 2001년부터이니 벌써 20년이 됐다. 최근 1년 사이에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나왔고, 올해는 발행량도 많아지고 가맹점도 대폭 늘었다. 활성화 이벤트도 연중 계속되고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 여수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



여수시는 지난 22일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위문활동에 나섰다. 최근 1년 사이에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나왔고, 올해는 발행량도 많아지고 가맹점도 대폭 늘었다. 활성화 이벤트도 연중 계속되고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여수시는 지난 22일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위문활동에 나섰다. 최근 1년 사이에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나왔고, 올해는 발행량도 많아지고 가맹점도 대폭 늘었다. 활성화 이벤트도 연중 계속되고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여수시는 지난 22일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위문활동에 나섰다. 최근 1년 사이에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나왔고, 올해는 발행량도 많아지고 가맹점도 대폭 늘었다. 활성화 이벤트도 연중 계속되고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광양 읍면동서 발급 가능

광양시는 농업(임업) 관련 용자·보조사업 등의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경영주 정보,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농·임업인이 관련 용자와 보조금,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순천시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임업인은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과 정부24(www.korea.go.kr)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설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 순천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6개 선정

### 문화재야행 6년 연속 선정... 문화재향유 도시 명맥 이어

순천시는 2021년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5개 분야 6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 ▲세계유산 활용,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으로 국비 4억8천8백만원과 지방비 6억8천7백만원 확보하여 총 11억7천5백만원으로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야행은 야간에 보는 문화유

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순천시는 2016년부터 6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순천부음성의 부활’이라는 주제의 문화재야행은 총 8억원의 사업비로 전남 시·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선암사를 중심으로 등재 3주년 행사와 세계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1년

동안 펼쳐지게 된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서는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송광사에서 진행되며, 문화재야행 야간탐방과 문화유산 스텝 투어연계를 통해 진행된다.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순천향교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와의 교류를 표방하고 있다. 인문학 강좌와 고지도 그리기, 진사시험 등 체험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선교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나들이’ 등 2개 사업이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선정됐다. /순천=조준익 기자

## 보성 코로나19 추석 대비 안전문화 확산

### 마스크 스티커·손세정 티슈 등 홍보물품 9만 개 배부

보성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석 명절 다수의 귀성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손세정 티슈, 마스크 스티커 등 9만 개를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위해 ▲마스크 쓰는 당신이 최고!, ▲마스크는 배려입니다!, ▲이기자! 코로나!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마스크 스티커 3만 개와 손세정 티슈 6만 개를 준비했으며 일반음식점, 카페, 노년연수장,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을 통해 배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비대면 배부를 우선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물품을 배부할 때에는 방역지침 철저히 지키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 구례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우수지역자활센터’ 선정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양철승)는 지난 8월 구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사무실과 자활사업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아픔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전년 대비 참여자 증가율과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증가 등 실적을 중심으로 시도별 우수지역자활센터를 선정했다.

구례지역자활센터는 2019년 신규 위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참여자 증가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생산물 매출수익증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농촌형 27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센터 사기진작 및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운영비 1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양철승 센터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수해 침수로 인한 좌절과 아픔을 딛고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함께 땀흘린 참여자와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참여자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현재 김부각 사업단을 비롯한 9개 자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 고흥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언론인 간담회

### 대책위 구성 등 이전 반대 당위성 적극 홍보 주문

고흥군은 23일 군청 우주출에서 언론인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슈로 불거진 광주 군공항 고흥 이전 검토와 관련하여 언론인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광주 군공항 고흥 이전으로 인한 고흥군이 입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고흥만 510만평 간척지 전부가 잠식되고 주변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군공

민들의 신체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가 산술적으로 추정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인들은 “청정 고흥이 군공항 후보지에 선정된 것에 놀랐다”며 “군 공항이 절대 고흥에 들어서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해당 사업에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군에서는 고흥에 군공항이 들어올 수 없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고흥=송승철 기자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